

## 세상이 뒤집어졌을때 When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Week 11:사도행전 Acts 9:1-9

## 전환의 해부 The Anatomy of Conversion

사도행전 Acts 9:1-5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 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But Saul, still breathing threats and murder against the disciples of the Lord, went to the high priest 2 and asked him for letters to the synagogues at Damascus, so that if he found any belonging to the Way, men or women, he might bring them bound to Jerusalem. 3 Now as he went on his way, he approached Damascus, and suddenly a light from heaven shone around him. 4 And falling to the ground, he heard a voice saying to him,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5 And he said, “Who are you, Lord?” And he said,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사도행전 Acts 9:6-9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6 But rise and enter the city, and you will be told what you are to do.” 7 The men who were traveling with him stood speechless, hearing the voice but seeing no one. 8 Saul rose from the ground, and although his eyes were opened, he saw nothing. So they led him by the hand and brought him into Damascus. 9 And for three days he was without sight, and neither ate nor drank.

“전환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드럽고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 상처이고, 마음이 부서지는 것, 그러나 상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접목이 있으면 항상 절단이 있을 것입니다. 이식편은 들어와야합니다. 상처, 절단으로 행해진다” -존 번안

“Conversion is not the smooth, easy-going process some seem to think... It is wounding work, this breaking of the hearts, but without wounding there is no saving... Where there is grafting there will always be a cutting, the graft must be let in...And this, I say, must be done by a wound, by a cut.” - John Bunyan

## 축복기도

- 당신은 당신의 마음 상상보다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May you encounter a God who is larger than your hearts imagination.
- 하나님의 대결을 환영합니다. May you welcome the confrontation.
- 당신이 고려 할수 있습니다. May you sit in the consideration.
- 그리고 당신은 회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And may you experience a conversion.